

시·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진통·갈등 격화

장석웅 교육감 유력서 중도 귀국해 노조·의회 설득 나서 시교육청 신설 정책국장 전문직 논란...시의회 심의 보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추진하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조례 개정안)이 조직내 반발과 도의회 우려를 뚫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력 출장길에 올랐던 장 교육감은 잡음이 확산하자 27일 중도 귀국해 노조 집행부 및 도의회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후 핀란드 등 북유럽 출장길에 오른 장 교육감은 애초 28일까지였던 일정을 줄이고 이날 중도 귀국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조직 내 반발이 날로 확산한데다,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도의회에서조차 '취지에는 공감하나 잡음이 워낙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사와 교육전문직(장학관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노조는 '취지에는 공감하

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노보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을 '밀실조직개편'으로 규정하는데 이어, 22일에는 도의회 앞에서 조직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에는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반직 노조가 들고 일어날 명분이 취약한데도 거세게 반발할 수 있었던 데는 장 교육감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교육감 공약사항인데다, '분청과 교육지원청 업무와 인원을 조정·재배치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타당한 명분이 있는데도, 조직 내 소통 실패로 집단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핵심이 분청 일반직 공무원 40여명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신설할 학교 교육지원센터로 내려보내는 등 일반직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노조와의 공식 또는 비공식 면담이라는 모양새라도 갖췄더라면 노조 입장에서 거세게 반발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교원단체조차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면 잡음이 이정도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노조 관계자 역시 "조직개편안에 관해 6차례나 면담을 신청했으나 입법예고 전까지 단 한 번도 교육감을 만날 수 없었다"며 "일반직 공무원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기백만 전남도교육청 노조위원장,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감과 조직개편안을

놓고 처음 대면한 자리였는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기존 교육국, 행정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해 '3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신설될 정책국 국장자리에 전문직을 앉히기로 한 것, 정책국 소관 업무가 교육국·행정국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김학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정책국 산하 과장, 팀장 다수를 일반직이 맡도록 하면서 정작 이들 부서를 총괄할 책임자는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에 맡긴 점, 정책국에 3개 과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기존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도 영양교사·영양사들은 "영양교육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젓빛 하늘 아래 '마스크 산책' 27일 광주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9 해질 17:21 달뜨기 22:34 달짐 11:53

중국발 황사 급습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5/12
목포	맑음	6/12
여수	맑음	9/14
나주	맑음	2/12
완도	맑음	8/14
구례	맑음	4/13
강진	맑음	5/14
해남	맑음	3/13
장성	맑음	3/11
보성	맑음	3/13
순천	맑음	6/15
영광	맑음	2/11
진도	맑음	5/12
전주	맑음	3/11
군산	맑음	4/11
남원	맑음	3/12
혁신도	맑음	10/11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먼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1.0~2.0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나쁨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목포	10:34	05:26	23:22	18:15
	06:07	00:02	18:57	12:5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9(목)	☀	1/14
30(금)	☀	3/14
12/1(토)	☀	4/14
2(일)	☀	5/14
3(월)	☁	9/15
4(화)	☁	8/13
5(수)	☀	2/10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진침대 사용자 40% 질병 호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사용자 433명(194가구)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5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진침대 사용자의 질병과 건강 이상 증상에 대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결과 난소·자궁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암 발병 환자는 20명에 달했다. 비염 환자는 19명, 아토피 등 피부질환 환자는 17명으로 집계되는 등 총 177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진침대를 11년 동안 사용했다는 호병숙(53) 씨는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도 2년 전 자궁암, 올해 1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라돈 침대 사용자에게 대한 철저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국 최초 아파트 경비원협회 설립...“일자리·갑질 대응”

광주지역 800여명 회원 가입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설립됐다.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이하 경비협)는 27일 광주 동구 YMCA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000여 단지 3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최경환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위원장과 김명진 서구갑 위원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참석했다.

경비협은 경비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노령이라는 이유로 2~3개월씩 단기간 고용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지자체와 입주자대표, 용역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 은행'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갑질'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경비협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갑질 피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경비원 개인은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서연진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협은 지난 4월 1일 광주시의회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경비원고용안정조례'에 따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구성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정폭력 현행법 즉시 철폐...접근금지 어지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상습·흉기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법을 즉시 철폐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철폐'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입소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

군복무중 발병·악화된 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진료비 50% 감면

군 복무 중에 발병했거나 악화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처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군 복무중 발병했거나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망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육아호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호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든든육아 동참법
품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직장 가족 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